

## 갈보리 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 ① 사순절: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과 절제로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 ② 기도회: 화요기도회가 7시 30분에 Duke Institute에서 있습니다. (12-14 Huron street, Takapuna)
- ③ 월례회: 부부선교회, 1 남선교회, 4 여선교회 월례회가 친교 후에 있습니다.
- ④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 ⑤ 감사: 공동체 찬양대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⑥ 교육: 세례자 예비 교육이 오늘부터 3주간 있습니다. (시간: 주일 오후 2시 50분, 문답 17일 주일 4시, 세례일 4월 24일 부활주일)
- ⑦ 판매: 1남선교회에서 교회건축헌금 모금을 위해 Entertainment Book을 판매합니다. 가격은 \$65이고 한부당 \$13불이 교회 건축 헌금으로 적립됩니다. (문의: 강동호, 최장한, 박덕철집사)
- ⑧ 음악교실: 갈보리 음악교실(피아노, 풀렛, 첼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4월 예배담당 안내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 안내	새신자 안내	주차안내	주방봉사
3일	이광희	방명아	김성희	박일영/임혜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10일	현석호	장연식	김수정	박일영/임혜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17일	고성일	원미경	김영옥	박일영/임혜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24일	박덕철	박병민	김윤숙	박일영/임혜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영육으로 고통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유함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김기섭, 박규남, 김경수)
2. 지진과 자연 재해로 고통과 슬픔중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위로함이 풍성하도록 아울러 이 어려움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도록
3. 작년 세계 기독교인은 22억 2995만 명으로 한해 동안 2억 5695만 명이 증가했으나 무슬림의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4.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과 용서, 그리고 섬김으로 사순절의 의미를 이웃에게 실천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 갈보리교회 선교지

### 해외 선교지

-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 국내 선교지

- ▷ City Mission 섬김
- ▷ 밀알장애우 봉사

## 4월 교회일지

### 사순절 넷째 주일:

4월 3일(주일)

### 사순절 다섯째 주일:

4월 10일(주일)

### 종려 주일 (성찬 주일):

4월 17일(주일)

### 한주간 저녁기도회:

4월 18-22 (고난주간)

### 부활주일 (세례식):

4월 24일(주일)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4월 3일**

주보 13권 14호

[www.calvary.org.nz](http://www.calvary.org.nz)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3:00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심창진
교육전도사	: 진혜령
시무장로	: 김영길, 이광희
	: 정관영, 현석호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 정덕수, 최재학
	: 유승재, 박제용
지휘	: 신경화
반주	: 송민영, 유지선

##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반주자
전주		
예배로 부를	히브리서 11:6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64장 (구 13장)	다함께
*성서교독	127 사순절 (4)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154장 (구 139장)	다함께
대표기도		이광희장로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7:9-12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집을 떠나는 축복	양명득목사
찬송	302장 (구 408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양명득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순서안내 | 다음주 기도: 현석호 장로 4월 17일: 고성일 집사

지난주일통계 | 1부 120명 2부 17명 학생부 23명 아동부 11명 유아부 15명 총계186명

### 성서교독 127: 사순절 (4)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을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랍이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어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 갈보리 칼럼

###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집사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젊은 아들이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병원에 갇힌지 어느새 한 달이 되어 갑니다. 한 달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두분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아닐런지요? 잠시 집에 옷 갈아 입고 온 사이 항암주사의 부작용으로 각혈을 하여 아들이 격리된 것을 모른채 잔 걸음으로 병실에 들어섰으나 보이지 않는 아들로 인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철렁 내려 앉는 가슴을 움켜 잡고 간호사에게 어찌된 영문이나고 물었을 때의 그 참담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문 집사님,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치료 받기 위해 병원을 다녀야 하는 몸임에도 사랑하는 막내아들의 병상을 지키기 위해 마다하며 몸을 불사르고 계신 모정을, 십자가의 모진 고통에 아버지를 부르심에도 아들을 외면하셔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이기때 그 애끓는 모정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 “당신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 줄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달리 이해를 하면 “당신이 지금 고통스러운 이유는 당신 스스로가 고통에 동의해줬기 때문이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살아가면서 왜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겠습니까? 모퉁이를 돌아서면 골짜기가 나오고 골짜기를 벗어나면 탁류가 가로막고 있는 듯한,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덮쳐 오는 것이 우리네 삶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있게 선포합니다. 지금 당신이 괴롭고 힘든 것은 외부적인 상황 때문이라기 보다 바로 당신 자신이 그 상황에 고통을 느끼기기로 결정하고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집사님, 차라리 아들의 고통이 집사님의 전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루에도 수백, 수 천번일 것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고통을 고통으로 동의하지 마시고 굴복하지 않기를 목사가 아닌 아버지로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고 그때 여호와와 말씀이 임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섭이는 지금 시위대 뜰과 같은 병원에 갇혀 있고 두분은 아들에게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올 때입니다. 병에 갇혀 있고, 고난에 갇혀 있고, 경제적 고통에 갇혀 있고 인생의 여러 삶의 형태로 갇혀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올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분’이라고 말씀 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임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부르짖으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당장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모르는 두 분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요 평강일 것입니다.

집사님, 기섭이는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기 위하여 시위대 뜰에 잠시 갇혀 있는 아들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집사님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결코 고통으로 동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이 작금의 처지를 통해 나를 더욱 온전하게 변화시키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저를 비롯하여 온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 예찬이 아빠

## 주일2부예배

오후3시	정년찬양단	다함께
찬양		
기도		방명아집사
성경봉독	시 126:5-6, 막 10:13-16	인도자
설교	아! 하나님의 나라	심창진목사
찬송	우리 오늘 눈물로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주 기도: 장연식집사

## 수요예배

오후7시30분	수요찬양단	다함께
찬양		
기도		김성희집사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20:7-10	다함께
설교	사탄의 최후	이태한목사
찬송	348 (구 388)	다함께
광고		인도자
주기도		다함께

수요예찬 기도: 정진택집사  
다음 수요기도: 김수정집사